

측정값에 대한 신뢰성(Reliability)



대부분의 가전제품은 전기를 이용해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성이나 안전성에서 더욱 편리하고 손쉬운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제품들은 더욱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1. 신뢰성의 개념

측정된 결과치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 정확성 등이 내포된 개념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능력 또는 동일한 개념에 대해 측정을 반복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

2. 신뢰도의 추정방법

▶ 재검사법(test-retest method)

- 동일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대상에게 일정기간을 두고 반복 측정하여 최초의 측정치와 재측정치가 동일한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측정간격은 시험효과를 고려하여 보통 2주 정도로 한다.

- 장점: 측정도구 자체를 직접 비교할 수 있고 적용이 간편하다.

- 단점

- ① 검사요인효과: 처음 측정이 재검사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 ② 성숙요인효과: 측정간격이 길 때에 조사대상집단의 특성변화에 따른 효과
- ③ 역사요인효과: 측정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의 영향

▶ 복수양식법(multiple forms techniques)= 대안(alternative)양식법

- 동일한 개념에 대해 2개 이상의 상이한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각각의 측정치간의 일치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측정도구에 포함된 항목이나 문장들이 어떤 측정대상의 모집단의 한 표본에 지나지 않는다는 논리에 근거
 - 단점
 - ① 척도간의 동등성(equivalence) 확보가 어렵다.
 - ② 신뢰성이 낮은 경우 실제 신뢰도가 낮은 것인지 동등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애매하다.
 - ③ 두 가지 측정도구가 유사해지면 시험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 반분법(split-half meth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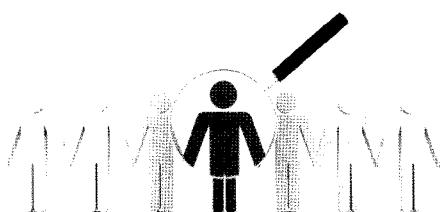
- 측정도구를 임의로 반으로 나누어 각각을 독립된 척도로 보고 이들의 측정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동일한 개념에 대해 여러 개의 문항으로 측정을 하는 경우 무작위로 측정도구를 두 집단으로 나누고 이들 측정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 전제조건
 - ① 측정도구의 동질성(homogeneity)이 확보. 즉, 측정도구가 같은 개념을 측정한다는 것이 명백해야 한다.
 - ② 양분된 측정도구의 문항 및 항목수는 그 자체가 완전한 척도를 이룰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하는데 반분된 항목수는 적어도 8~10개는 되어야 한다.
 - 단점: 항목을 나누는 방식에 따라서 신뢰도 계수의 측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

▶ 내적 일관성 분석(internal consistency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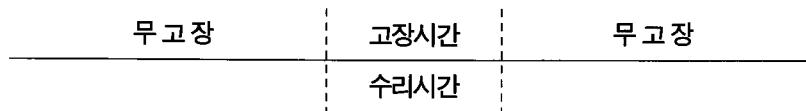
- ① 개별문항을 하나하나의 검사점수로 하여 상관관계를 구하고 이들의 평균상호상관관계를 신뢰도의 추정치로 삼는 방법으로 평균상호상관은 모든 가능한 반분법을 사용하여 구한 신뢰도 계수의 평균을 의미한다.
- ② 신뢰계수 추정법 중 가장 알려진 방법은 크로바흐(Cronbach)의 알파계수(α)인데 그 값은 적어도 0.60은 넘어야 신뢰도가 만족할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3. 신뢰성 평가척도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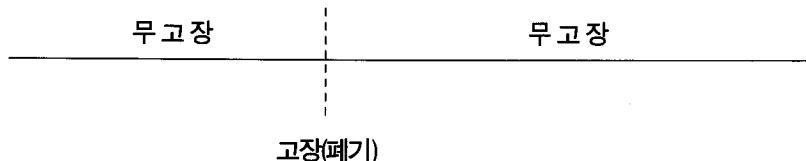
▶ 평균수명(MTBF,MT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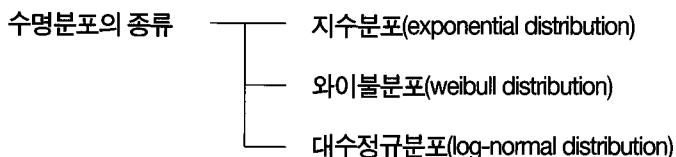
○ MTBF(Mean Time Between Failure)



○ MTTF(Mean Time To Fail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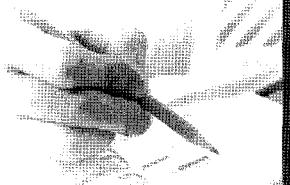
4. 수명분포 파라미터와 평가척도



5. 가속수명시험(Accelerated Life test)

▶ 가속시험의 종류

- Qualitative Tests : 고장에 대한 정보나 고장모드만을 얻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 (Elephant tests, Torture Tests, HALT, Shake and Bake Tests라고도 한다.)
- ESS와 Burn-in
 - ESS(Environmental Stress Screening Tests:환경 스트레스 스크리닝시험) : 전자 또는 전자기계 제품에 대해 가속수준의 환경 스트레스를 가하는 시험이다. 기속인자로는 열사이클링, 랜덤한 진동, 전기적 스트레스 등이 있다.
 - Burn-in시험 : ESS의 한 형태로서 제조과정의 불량(불량부품사용, 가공불량, 오염등)이 내포된 아이템들을 선별, 제거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 이들 제품이 초기고장을 일으키므로 번인시험은 초기 고장을 제거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 Quantitative Accelerated Life Testing)



- 정량적 가속시험은 앞의 시험들과는 달리 사용조건에서의 제품의 수명을 정량적으로 구하기 위한 방법이다.

▶ 가속시험의 방법

○ Usage Rate Acceleration

- 실제 사용조건에서는 연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연속적으로 가동시킴으로써 고장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6시간 가동하는 식기세척기를 24시간 연속 가동하면 시험시간을 28배 단축시킬 수 있다. 이 시험방식에서 얻어진 수명데이터에 대해서는 사용조건 시험데이터와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하여 제품의 수명특성을 평가한다.

○ Overstress Acceleration

- PC와 같이 하루 종일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위의 시험방법의 효과를 볼 수 없다. 이 때는 사용조건에서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가하여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가속조건에서 얻어진 데이터들을 사용하여 extrapolate(외삽)함으로써 사용조건에서의 수명특성을 예측한다. 가속인자로는 온도, 습도, 전압, 진동 등이 사용된다.

▶ stress와 수명과의 관계

○ 아레니우스(Arrehenius)모형

- 아레니우스모형은 스웨덴의 물리화학자 아레니우스(Arrehenius)가 제안한 온도와 반응률의 관계식(활성화 에너지, 온도와 반응속도의 관계)에서 도출되었다. 이는 수명이 반응률의 역수에 비례한다는 내용이다.

○ Eyring 모델

- 아이링 모델은 양자역학원리에서부터 도출되었으며 가속인자로 열스트레스(온도)를 적용하는 경우 주로 사용되나 습도 등 열이외의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 역승모델(Inverse Power Law Relationship : IPL)

- 역승모델은 전압 등과 같이 주로 비열 가속인자를 적용하는 경우 사용된다.

○ 온도습도 모델 (T-H)

- 아이링 모델의 변형으로 온도와 습도를 가속인자로 적용하는 경우 사용된다.

○ 온도-비열 스트레스 모델

- 온도와 비열 스트레스(예: 전압)를 가속인자로 적용하는 경우 아레니우스 모델과 역승 모델을 조합한 온도-비열 스트레스 모델을 사용 할 수 있다.